

‘지혜의 빛_ 色으로 전하고, 法으로 그린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별기획전 개막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별기획전 “지혜의 빛_색으로 전하고, 법으로 그린다” 전시개막식이 10월 31일 오후 3시 서울 관훈동 『공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조계종 조무원장 자승스님, 문화부장 진명스님, 국회 정각회 회장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과 불교미술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 테이프를 끊었다.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차사를 통해 “4세기 후반 최초로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치·경

제·문화에 중요한 축을 함께해 왔다.”며 “불교미술은 1700여년에 달하는 한국불교의 정신적 가치가 민족의 문화로 발현된 것”이라고 한국 문화 발전에 있어서 불교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1970년 ‘불교미술전람회’로 시작하여 끊임없이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어느새 42년이라는 세월과 26회의 역사적인 전풍을 갖게 되었고, 불교미술대전 출신 수상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들은 곧 불교 포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올해 기획전 출품 작가는 총 22명으로 조각부문에는 김영찬·남진세·이재순·이재윤·이진형·한주영씨 회화부문에는 권지은·김상용·박미진·신영길·양선희·윤원선·이인·채윤지씨, 공예부문에는 명천스님·김송사·안명선·오해균씨가 전시에 참가했다. 초대작가로는 변승훈·오재현·임옥상·정채희씨가 선정되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매년 공모전만 시행해오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한해는 공모전, 한해는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불교미술 작가의 육성 뿐 만아니라 진흥의 방법까지도 모색하여 보다 굳건한 불교미술의 장으로 만드는데 그 의의가 크다.

김종열 기자

부산 삼광사 제4회 가을 산사음악회 봉행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화산 스님)는 10월 31일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제4회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부이사장 윤덕 스님, 감사원장 훈광 스님, 총무원장대행 무원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정산 스님과 일한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등 7,000여명이 참석, 음악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다.

음악회의 첫 무대는 삼광사 화엄합창단이 장식했다. 화엄합창단은 ‘화합의 노래’ 등을 불러 음악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무대에 오른 신유 씨가 ‘꽃물’, ‘시계바늘’, ‘잠자는 공주’를 열창, 고즈넉한 산사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또 불자가수회 부회장 유지나(무슨 사랑, 기도하는 여인), 여운(10월의 어느 멋진날에), 김태곤(송학사, 망부석), 김화정(희망의 나라, Por una cabeza), 가야랑(민요모음, 수리 수리 마수리), 강지민(그리움만 쌓이네, 붉은 노을, 바다 여행), 적우(작은 새, 어떤이의 꿈, 아름다운 강산) 등이 출연, 무대를 한껏 달궜다.

음악회의 대미는 인기 트로트 가수 설운도 씨가 장식했다. 설씨는 히트곡 ‘누이’, ‘추억 속으로’ 등을 불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은 음악회 중간 무대에 올라 음악회에 참석한 모든 대중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관객들의 요청으로 노래 실력을 뽐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조계종 15대 하반기 총회의장에 향적 스님



11월 1일 개원한 제192차 조계종 정기 중앙총회는 제15대 하반기를 이끌 총회의장에 향적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향적 스님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임법발의를 돕고 종단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종단의 임법기관인 총회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중법 재개정은 종단 100년 대계와 종도 권익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일은 의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원 스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향적스님은 총회의원 4인 의원으로 <해인>지 초대편집장과 조계종 교육부장, 불교신문사 사장과 선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 능인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수석부의장에 정묵 스님을, 차석부의장에 범안 스님을 선출했다.

사무처장에는 경우 스님이 유임됐다.

조계종 총회는 정기 감사와 하반기 상임분과위 구성을 위해 정회했으며, 11월 6일 속개하기로 했다.

진각중 『진각문화전승관』 헌공불사 봉행

-지하2층 지상 7층 연면적 12,077㎡ , 3,000여명 동참



옴마니반메흠을 상징하는 6층 탑형식의 현대적 건축물인 진각중 진각문화전승관 헌공불사가 10월 30일 오후 2시 종인원에서 봉행됐다.

참회로 비우고 서원으로 채우는 진각문화의 새로운 역사 진각문화전승관은 5년여만에 건립됐으며, 지하2층 지상 7층 연면적 12,077㎡ 규모이다.

총지종 서울,경인 교구장 범등정사, 총무과장 서강정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무원스님과 정,관계 인사 및 교도 3,000여명이 동참했다.

총금강회장 (신도회장) 일석 각자는 개식사를 통해 “앞으로 진각문화전승관은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라는 회당종조의 말씀처럼 전 진언행자의 바람을 담아 진각종지를 실현하는 미래의 견인차가 되어 종단과 한국불교의 상징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각중 총회의장 해명 정사는 강도발원을 통해 “이제 진각문화전승관은크고 작은 세사사의 분별을 넘어 오직 동참으로 하나되는 무분별의 울림을 육자진언으로 전하는 수행종단이 되도록 서원 정진하겠다”고 기원했다.

진각문화전승관 영상물 상영, 건립추진경과보고에 이어 진각중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기념사에서 “새로이 개관하는 진각문화전승관은 인과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살피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펼치는 자리이자, 시작도 끝도 없는 수행의 자리가 되어 불법이 흥왕하여 인류의 평화가 되고 저마다의 복과 지혜가 되는 소중한 인연으로 넘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진각문화전승관 헌공불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불교미래의 발전적 서원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와 서원 그리고 수행으로 정진하듯 자신과 채신의 공간을 우리사회의 문화로 확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축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도 김용환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제 이 공간이 사람이 넘치고 교류가 활발한 자리가 되어 연기의 가르침이 사람과 사람의 문화가 되고, 인과의 가치가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작용해 문화 공간, 문화 상생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판와나메티 회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축사와 조선불교도연맹의 축하메시지 등이 이어졌다.

행사는 진각중 산하 서울 진각, 참소리, 대구 금강, 부산 유가, 대전 심인, 경주 흥원과 마니주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은 교성곡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 ‘금강원의 죽비소리’ ‘눈을 떠라’ ‘진동하네 진언향기’, ‘옛날에는 의발이요, 이제는 심인이라’ 등의 음성공양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진각문화전승원은 외형적으로 1-4층에 해당하는 기단 그리고 옥계양식의 지붕이 3개 그리고 보주양식의 상륜부로 구성된 탑 형식의 건축물로 옥계양식의 지붕의 모서리 부분은 금강저 양식의 기둥으로 받치는 형상을 하고 있다. 또 진각중 수행의 근본이며 생활불교의 실천적 의지를 담았다.

진각중 총인원= 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개천사	이희권	9/26	10,000
개천사	무명씨	10/4	20,000
개천사	전경택	10/5	20,000
개천사	송상규	10/15	20,000
개천사	송대경	10/15	10,000
개천사	강순시	10/19	10,000
건화사	무명씨	10/4	5,000
관성사	황성녀	9/28	10,000
관성사	박현숙	10/5	10,000
관성사	인선	10/22	20,000
국광사	김철순	10/10	30,000
기로해정		9/26	10,000
기로대관		10/22	10,000
기로대자행		10/22	10,000
기로밀공정		10/22	10,000
기로법수원		10/22	10,000
기로법장화		10/22	10,000
기로법지원		10/22	10,000
기로불멸심		10/22	10,000

기로사홍화	10/22	10,000
기로상지화	10/22	10,000
기로수증원	10/22	10,000
기로충지화	10/22	10,000
기로선도원	10/22	10,000
기로해정	10/24	10,000
단음사천공	10/5	4,000
단음사법연지	10/18	10,000
덕화사하순옥	10/19	5,000
덕화사시정	10/22	10,000
덕화사원만원	10/22	10,000
밀인사정정희	10/2	5,000
법천사김정숙	10/5	10,000
벽룡사무명씨	10/12	10,000
벽룡사무명씨	10/12	10,000
벽룡사양정현	10/18	10,000
벽룡사양지현	10/18	10,000
선립사황귀석	9/27	10,000
선립사심지장	10/19	10,000

선율생연표귀	10/19	10,000
성화사무명씨	10/25	50,000
수인사김봉기	9/27	10,000
수인사황보기문	10/11	20,000
수인사장영택	10/19	50,000
승천사원봉	10/23	10,000
승천사지선행	10/23	10,000
시법사진여행	10/17	10,000
실보사이순옥	9/27	10,000
실보사조순애	10/18	120,000
실지사정우석	10/19	10,000
운천사반야화	10/22	40,000
정각사구정희	9/26	20,000
정각사김문수	9/28	10,000
정각사구정희	10/10	20,000
정각사박후회	10/22	10,000
정각사김문수	10/24	10,000
지인사승효제	10/23	10,000
지인사허성동	10/25	30,000

초록어	김명순	10/25	5,000
린이집			
총지사	유성열	9/26	10,000
통리원	김정연	10/23	5,000
통리원	김지영	10/23	5,000
통리원	장동욱	10/25	10,000
혜정사	김경미	10/17	50,000
화음사	강순란	10/4	5,000
흥국사	지정	10/23	20,000
	정희연	10/8	20,000
	김갑선	10/19	10,000
	원정언	10/25	30,000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회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일상 속의 깨달음

화령 (중앙교육원장)

불교는 오랜 세월을 경과하면서 교리가 세밀해지고 다양화되었다. 그것과 함께 불교의 깨달음이란 것도 관념화되어 버린 경향이 강하다. 특히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선불교는 그러한 경향이 다분하다. 대중들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너무 확대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하여 아예 불교 수행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신의 복이나 비는 식으로 흘러가 버렸다. 그 결과 많은 대중들이 불교와는 멀어져 버리고 다른 종교에 으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무르익으면서 깨달음을 관념화해온 결과이다. 관념적인 깨달음은 자신을 위해서나 인간사회를 위해서나 그다지 소용이 없다. 인간 사회에 무익한 혼자만의 관념적인 깨달음은 목적보다도 소용이 없다. 인간사회에서 유용한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렇게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열고 저자로 돌아와서 많은 대중들을 교화하신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원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라는 가르침이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계행의 준수에 의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재가불자로서는 오계의 준수를 통하여 자신을 제어하며 오계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매 순간 자신을 놓치지 않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이다. 매 순간 자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터에 가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그 과정 모두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 운전을 하거나 점심을 닦고 방청소를 하며 사람들과 일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수행이 되어야 한다.

성불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을 목표로 두기 전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만 1%라도 부처에 가까워지겠다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1% 성불하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점점 완전한 붓다의 모습에

가까워 질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성불이라는 거창한 목표 앞에 주눅이 들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행의 자세이며 이웃에 훨씬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수행을 바탕으로 무한한 자비심과 함께 자기가 가진 사회적 역할을 힘껏 발휘하여 중생계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붓다의 의도일 것이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정·혜를 실천하며 사회 속에서 대중들의 무지를 일깨우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정진하는 모습이 진정한 대승보살의 모습이다. 여기에 무슨 출가, 재가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겠는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스스로를 주의, 관찰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타파하고 탐진치를 다스리며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든 중생과 사회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이 곧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이 아니겠는가? 재가불자는 오히려 출가자들보다도 인간사회의 현실을 더 잘 직시할 수 있으며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에 눈뜰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현실적 시련에 부딪쳐야 하는 재가불자들이 출가승보다도 오히려 더 원만한 인격을 갖추 수 있고 더 많은 깨달음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인간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할 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궁극의 경지는 깨달았다는 의식이 없이도 모든 것이 법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불자들의 궁극 목표는 열반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먼저이다. 가정과 사회에 머물면서도 거기에서의 역할과 시련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하고 이어간다면 그것이 곧 훌륭한 승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우리가 주장하는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이다.

20세기 초 한국의 재가불교

보정 김종인 박사 (법장원 연구원)



흔히 불교는 2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오래된 종교이면서도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달리 현대성, 이룰테면 과학적 사고방식, 민주주의, 합리주의 등과 조응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불교 또한 고대 사회의 지적인 혹은 정신적인 한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한계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극복되어야 했다. 특히 재가불자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점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붓다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자신의 승단에 받아들였으며, 주저 끝에 내린 결정이기는 하지만 여성 또한 받아들였다. 그것은 분명 그의 위대한 이상주의적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는 재가자들 일반이 승단의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초기불교에서 출가자들의 이상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반해, 재가자들의 이상은 공덕을 쌓아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대승불교의 출현은 이러한 승단과 재가 사이의 엄격한 구분에 대한 반발이 그 동기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불교의 불성사상(佛性思想)은 승단과 재가의 구분을 부정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가 되었다. 『법화경』은 승단에서의 엄격한 수행이 아니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법화경』은 이런 면에서 대승불교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화경』이 제시하는 이러한 단순한 신앙행위를 통한 깨달음의 증득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기만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왜냐 하면 여전히 출가자의 길과 재가자의 길 사이의 구분을 현실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에 와서도 출가자와 재가자는 명목상으로는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대승교학의 최고봉인 용수는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 다음과 같이 양자의 길을 구분하고 있다. “재가보살은 마땅히 재시(財施)를 행하여야 한다. 출가인은 마땅히 법시(法施)를 행하여야 한다. 재가의 법시는 출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용수 54).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재물로 보시를 하여 그들을 부양하고, 출가자들은 재가자들에게 설법을 행한다는 전통적인 역할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말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히 현대사회로 전환하는데 이러한 전환은 불교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불교계 내에서는 재가자의 모습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는 재가 불교 지식인 및 엘리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둘째는 재가승의 등장이다. 셋째는 일반 재가 신도들의 불교 교리 학습이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기술할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한국불교계에는 재가 불교 지식인 및 엘리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들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주목받는 활동을 한 사회적 엘리트들 가운데서 불교에 영향을 받거나 신앙한 사람들이 눈에 띈다. 유대치, 이능화, 한용운, 장지연, 최남선, 이광수, 권상모, 김태흠, 이완용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수백 년 후에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는 않았지만, 이완용, 한용운, 최남선, 이광수 등은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기억될 만한 인물들이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재가승의 출현과 해방 후부터 첨예화되기 시작하여 결국은 파국으로 전개된 이들과 출가승과의 분쟁 과정은 현대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상처이다. 그러나 재가승의 출현은 왜색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가 현대성과의 대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엽의 재가승의 출현은 분명 한국사회의 현대 사회로의 편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재가승의 출현은 한용운이 기대했던 포교의 활성화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사원의 경제적 침탈, 주지쟁탈전, 부정사건, 파쟁의 근원”이 되었다.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일반 재가 신도들의 활동의 부진이다. 전현대 시대의 경우 대부분의 종교전통에서 일반 신도들의 종교 행위는 매우 파동적이며 모든 것은 성직자들이 이끌어 가는대로 맡겨졌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성직자와 일반 신도들 간의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유럽에서의 프로테스탄트의 출현과 그 속에서의 일반 신도들의 교회 내부에서의 지위의 변화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국민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대와 20년대를 전후하여 일부 진취적인 승려들에 의해 현대사회의 문화에 조응하는 재가신도상이 제시되었으며, 극히 희귀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여성재가자들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으로서의 불교를 실천하고 단체를 만들었다. 재가불자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백용성과 선불교 중흥에 노력한 만공 등에 의해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부인선원에서 수행하는 여성불자가 출현하였다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려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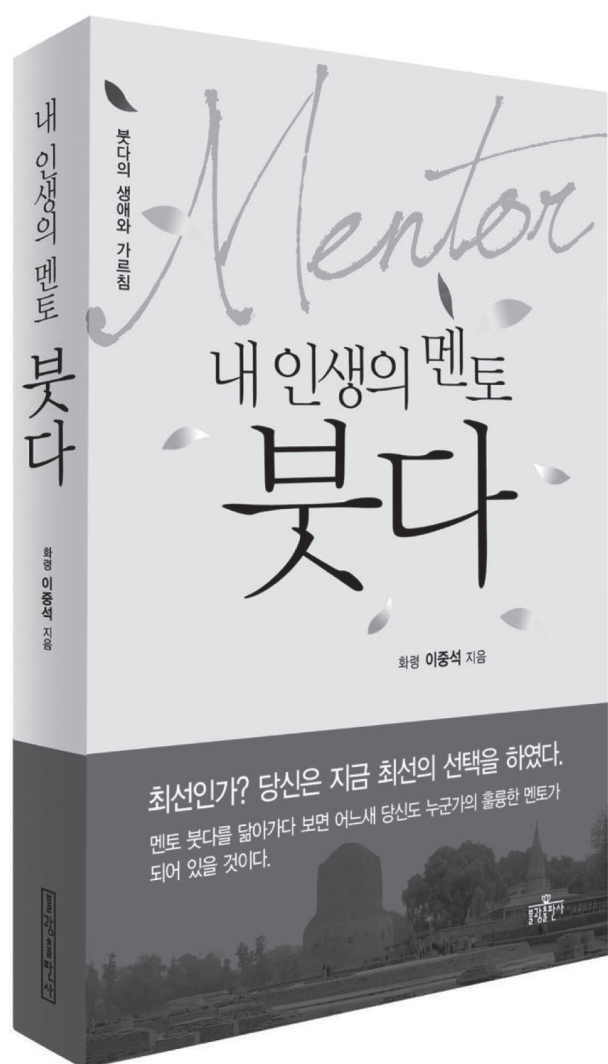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종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충지동의보감

임산부보약



조선휘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이를 위해 산후조리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질환이 출산, 임신, 유산 등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므로 누구보다 산모스스로 산후조리와 관리에 대해서는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적절히 회복하고 안정하지 못할 경우 흔히 말하는 산후풍, 산후비만, 산후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고생하고 오랜 기간 고통 받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산후 산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보통 한의학에서 3*7일이라 하여 출산 후 21일간은 절대안정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 * 분만 첫날은 침상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2-3일 부터는 수유시, 식사와 소변을 보기 위해 약간씩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 7일부터는 가벼운 샤워나 머리감기 화장실을 가는 정도로 움직여줍니다.
- * 2주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안을 자유롭게 다녀도 좋습니다.
- * 출산 시 자연분만의 경우 분만3일째부터 제왕절개의 경우 퇴원하게 되는 7일째 부터 한약의 복용이 가능하며 자궁수축을 돕고 수유를 도와 산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이후 100일까지는 적어도 산모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 회복상태에 따라서 무리한 일을 피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족들이 협조하여야 합니다.

음식섭취의 경우 분만 후 2주까지는 미역국을 많이 먹어 자궁내 어혈을 배출시키고 혈액생성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산후 보약이라 하여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다려진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산후 체중조절에 실패하거나 회복에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주부터는 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곱국이나 쇠고기, 계란을 비롯해 야채와 적당량의 과일 등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야채는 익히고 과일은 차지 않게 가급적이면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산후에 처방되어지는 약의 경우 출산후 자궁내에 남아 있는 오로를 비롯해 잔여 임신관여물질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풀어가게 되며 추후 손상된 기혈을 회복해 임신전의 상태로 건강을 찾아가 수 있도록 조절하고 돕게 됩니다. 한 때 원정출산의 붐이 일어 산당에 가까워지거나 임신 후 외국으로 나가 출산을 하는일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원정출산여성들이 체질적으로 그 나라의 출산후 문화에 익숙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산후풍을 얻어 한국에 들어온 후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습이며 우리의 체질과 정서에 맞는 적합하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요즘 들어 날로 인기를 더 해가는 웰빙의 개념을 볼 때 적절한 산후조리야말로 여성건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자생활법률

상가건물 주인이 계약 만료의 이유로 무조건 비월 달립니다.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는지요?

저는 2005년 11월 서울 소재 김씨 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9,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였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김씨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하여 그 당시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7천만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비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위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장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권리로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 중 가장 실질적인 보호장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고, 임차보증금액이 9,000만원이므로 서울지역의 같은 법 적용한도인 2억4천만원 이내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결정사유가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 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고구마 밥 -달콤한 건강식



고구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서 혈압을 조절하며, 식물성 섬유소가 풍부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조절하며,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함유되어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뛰어나고, 항산화 물질이 있어 항암작용을 하며 허약체질을 개선해 주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조리 방법

1. 쌀을 씻어서 1 시간 정도 불린다.
 2. 고구마는 사방 2 cm 정도 크기로 썰어 찬 물에 10 ~ 20 분쯤 담가 전분을 뺀다.
 3. 밥통에 불린 쌀을 넣고 고구마와 완두 콩을 얹은 후 물 2 컵을 부어 밥을 짓는다.
- 위의 분량대로 양념장을 만들어 밥과 곁들여 낸다.

재료 준비(3~4 인분)

쌀 2 컵, 고구마 (중간 크기) 2 개, 물 2 컵, 완두콩 1/2 컵
양념장 : 간장 5 큰 술, 고추 가루 1 큰 술, 다진 파 2 큰 술, 다진 마늘 1/2 큰 술, 참기름 1/2 큰 술, 통깨 1/2 큰 술

기타 팁

1. 쌀을 너무 오랫동안 불리면 밥맛이 덜하고 영양소가 물에 녹아 버린다.
2. 밥통은 보통 밥하듯 맞추면 된다.

편집 정리 =백지순 위원

고구마의 효능

조선 영조시대에 구황작물로 여겨져 쓰시마 섬으로부터 들여온 고구마는 허기를 달래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특별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으로서 오늘날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여성美한의원

진료과목

1) 비만클리닉

여성 : 자궁 다이어트
남성 : 복부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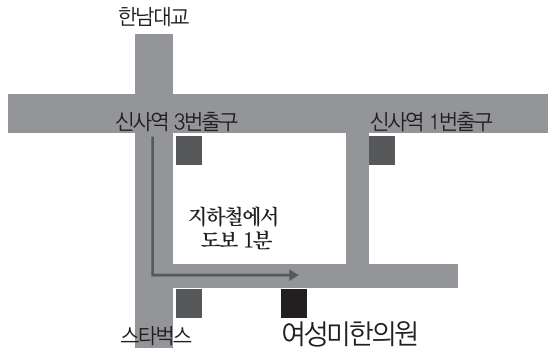
2) 여성병(부인과)클리닉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 : 장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우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 좌약 요법 (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 가족클리닉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

오시는길



진료시간
평일 9:30~18:30
주말 9:30 ~16:00
점심시간 13:00~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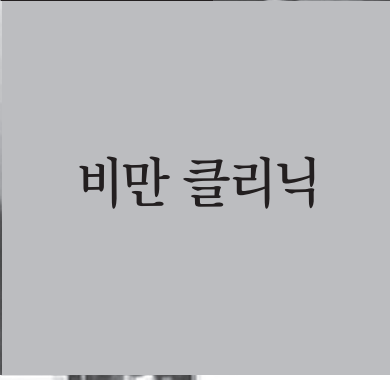
저주파 치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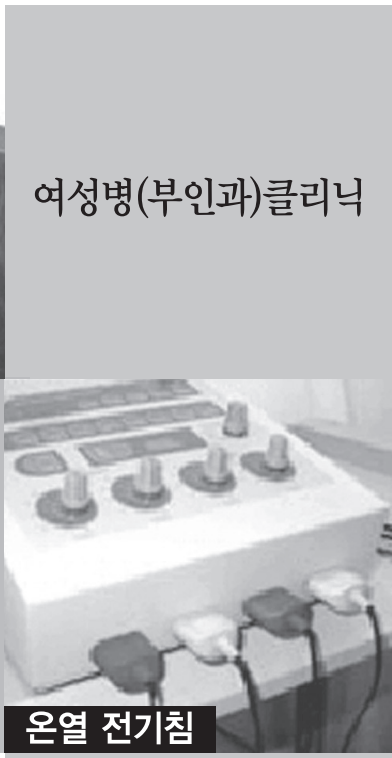
혈액 분석기



좌훈욕기



비만 클리닉



온열 전기침

여성병(부인과)클리닉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자동팔강진단기



저주파 치료기

언제나 열린마음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문의 & 상담
02) 545 - 0072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스님)은 지난 백년 우리 문화유산이 걸어진 길에 담긴 사연을 모아, 2012년 특별전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를 2012년 10월 17일부터 전시한다. 우리 문화재는 대부분 적지 않은 곡절과 많은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었다 되찾은 문화재, 훼손된 것을 되살린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 총131건 140점 (국보1건, 보물 10건, 시도유형 7건 포함)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기획전이다.

일제의 침략 그리고 한국전쟁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나간 우리 문화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동족이 서로 싸운 한국전쟁에서는 피아 가릴 것 없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훼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경제의 이름으로, 개발의 미명 아래 수십 년 동안 문화유산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했다. 크게 보자면 이것이 지난 백년 우리 문화유산이 걸어진 길이고, 받아온 대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들은 계속 이어졌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천년 고찰과 그 안에 간직된 문화재를 지켜낸 군인과 경찰이 있었다. 명령에 따라 절을 불태우려는 군인들을 묵묵 결고 막아섬으로써 위기에 처한 사찰을 구해낸 스님(한암스님)도 있었습니다. 기증이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되돌려 받거나, 유명한 해외 경매에 나온 유물을 구입하여 문화재를 되찾아 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숨은 노력들이 쌓이고 모여 문화재가 우리 손에 전승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의 문화재 수난과 그에 맞서 문화재를 지키려 애쓴 분들을 기리는 기억과 추념의 마당으로 꾸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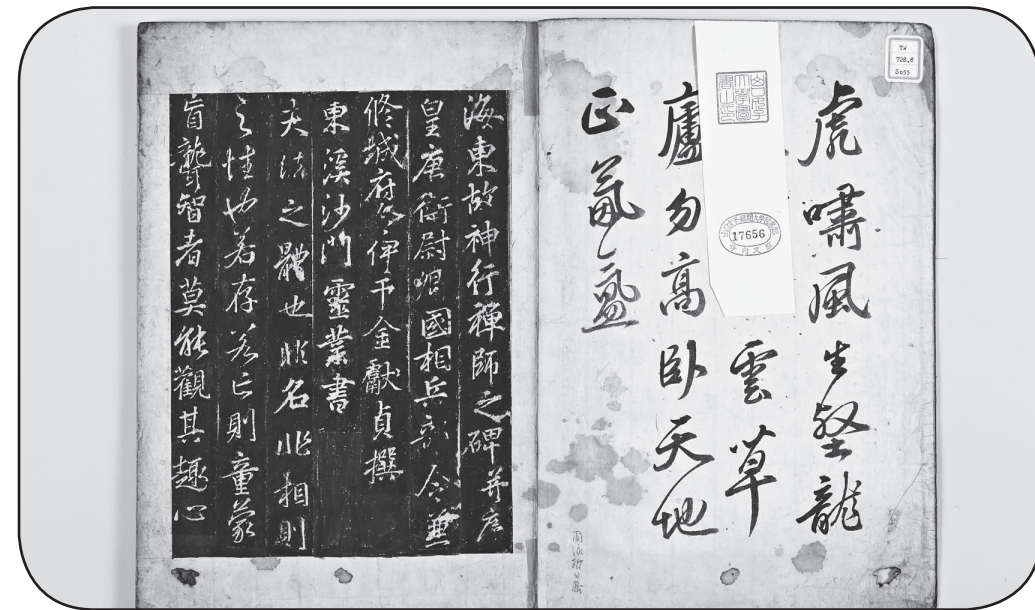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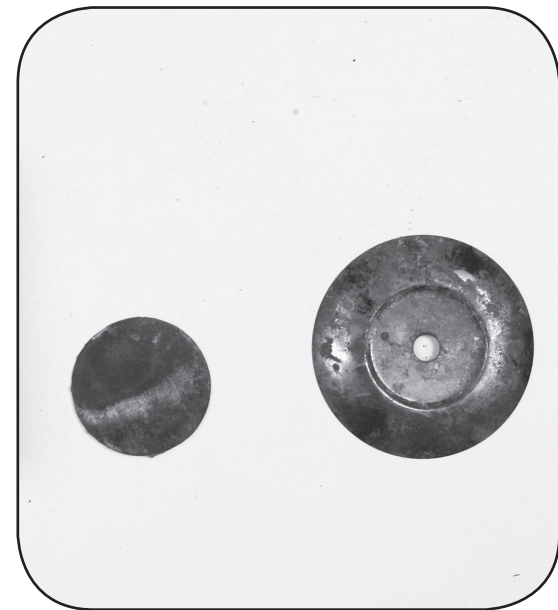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문화재

사찰에서 소장한 불교문화재라면 예배의 대상인 불상이나 불화, 석탑이나 승탑뿐만 아니라 갖가지 불교공예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찰의 모든 소장품이 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국보나 보물, 유형문화재와 같은 지정문화재보다는 도난 뒤 매매가 손쉬운 비지정문화재들이 도난의 표적이 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찰 문화재에 대한 도난 사례가 신고 되어, 어떤 문화재가 도난당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80년대 후반 이후로 신고된 도난 문화재는 700여 건에 이른다. 한편 문화재 도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도난 문화재의 회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사연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도난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난 문화재의 약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문화재 32건 38점을 도난과 회수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전시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많은 도난 문화재들이 언젠가 되돌아오기만을 바랍니다.

훼손된 문화재의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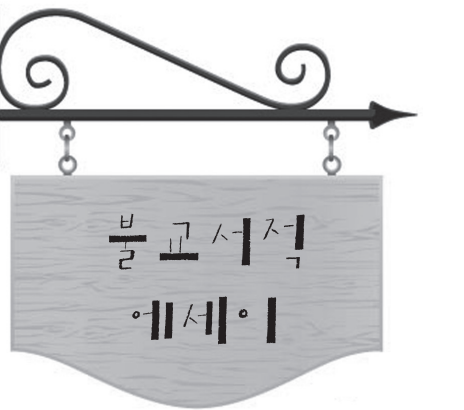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를 다음 세대에 잘 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나, 문화재 또한 물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흐르는 세월 속에서 변형되고, 망가지고, 사라져가게 마련이다.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었던 문화재는 처음부터 변형되고 훼손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풍화에 노출된 문화재들은 자연스럽게 낡거나 상해 가기도 하며, 혹은 관리자의 부주의로 불에 타거나 인위적인 손상을 입는 문화재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원래의 모습을 잃고 훼손되어 사라져가는 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되살려내는 작업이 바로 보존과학이며 보존처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보존처리를 통해 훼손된 문화재가 다시 원형을 되찾는 과정을 해당 문화재와 함께 전시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교차해온 지난 백년 동안 우리 문화유산이 걸어진 길을 되돌아보며, 그 과정의 공과와 득실을 살펴 내일을 가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시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픈 과거를 잊지는 않되,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고, 되찾고, 되살리려는 노력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가 우리 문화유산의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살펴보면서 내일을 가늠하는, 기억과 성찰과 전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계사= 김종열 기자



인도 성지순례 대표적 여행기

법정스님의 <인도기행>



인도기행



중국, 미국, 태국,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를 꼽는다면

인도를 들 수 있겠다. 한때 인도는 열병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퍼졌었다. 이런 붐의 근원을 굳이 따지자면 명상가이자 번역가인 류시화씨의 인도 여행기가 한몫했을 것이다.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저술한 그의 여행기는 인도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 또한 류시화씨 여행기를 통해 인도를 꿈꿨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별천지쯤으로 인도를 생각했고, 그곳에 다녀오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인도로 떠난다. 인도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 인도를 방문한다. 인도와 네팔의 국경지역인 룸비니에서 태어나 인도 전역에서 전법활동을 하다 변방 쿠시나가라에서 생을 마감한 부처님의 삶의 흔적은 인도 여기저기에 남아있다. 불자들은 이런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부처님을 역사적 인물로 재확인하고, 남긴 뜻을 되새기고자 인도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것이다.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여행기를 꼽는다면 법정스님의 <인도기행>을 들 수 있겠다.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둔 불교신자들이 참고하기에 좋은 책이다.

법정스님은 1989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불교성지를 중심으로 인도를 여행했다. 이때 스님의 세수는 59세고, 좀 젊은 스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책에 실린 사진 또한 스님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스님의 담백한 문장과 상세한 설명, 그리고 명징한 정신세계가 느껴지는 글은 1990년 조선일보에 9개월 간 매주 연재됐다가 1991년에 선타사에서 <인도기행 - 삶과 죽음의 언저리>라는 제목으로 출간됐고, 계속 재 간행돼온 스테디셀러다. 2006년 마지막으로 출간된 후 스님의 유언에 따라 절판된 <인도기행>은 법정스님의 유일한 여행 산문집이면서 또한 인도여행 책 가운데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법정스님의 <인도기행>은 인도의 큰 도시 캘커타의 혼잡함에 대한 당혹감에서부터

시작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원시와 문명이 한데 뒤엉켜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한 캘커타에서 스님은 문화적인 충격에 휩싸인다. 아마도 그 충격은 일반인보다 더 컸을 것 같다.

산중에 은둔해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고요한 환경에서 수행에 정진하던 스님에게 인도는 카오스 그 자체였으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서 스님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확연히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과 충돌하는 현실의 인도 환경에서 갈등하면서 보다 확장돼 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 자리 잡은 곳은 좌우로 두 개의 변소가 마주하고 있는 출입구다. 바닥에 미리 준비해 간 비닐을 펴 그 위에 솜을 접어서 깔고 좌정했다. 양쪽 변소 틈바구니에서 밤을 새울 걸 생각하니 난감했지만, 오기로 버티기로 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밤새 끊임없이 들락거렸다. 그때마다 코로는 지린내를 맡아야 하고 귀로는 배설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 처음에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자정이 되자 생각이 문득 바뀌었다. ... '관념의 차이'에 생각이 미치자 이때부터 오기도 불만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마음은 지극히 평온해졌다. 우리는 이 관념 때문에, 틀에 박힌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수가 얼마나 많은가.

따지고 보면, 더러울 것도 깨끗할 것도 없는 불구 부정의 세계. 이날 밤, 변소 앞 바닥에 앉아 겪었던 이 일이 인도 여행 중에 가장 고맙고 뜻있는 체험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 생애에서 두고두고 음미할 사건이 된 것이다. (184-185P)

법정스님의 인도 여행은 대체로 불교유적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지인 보드가야,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와 최초의 설법을 한 녹야원, 열반에 이른 쿠시나가라까지 인도의 4대 성지를 비롯해서, 불교 포교의 중심지였던 왕사성, 최초의 불교 사원 죽림정사, 부처님이 수행 중 가장 오래 머물렀다는 승원 기원정사, 세계의 학승들이 모여 인도 문화의 해외 전파 본거지가 되었던 날란다 대학 등의 불교 유적지를 여행하면서 겪은 체험담과 느낌,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일화 등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편이다.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는 부처의 가르침도 곳곳에 담겨 있다.

벽 룡 사 헌공불사

총지종의 오랜 서원이었던 벽룡사가
비로자나 법신부처님께 헌공되었다.
전국에서 동참한 스승 및 교도들은
서원당을 가득채웠다.
효강 종령님의 헌공사 대로 교화의 전당으로
총지인의 정진 수행처가 되기를 바란다





참 스승의 자세로 교화의 신기원을 이루자. -제80회 추계강공회 총본산 충지사에서 봉행



총기 41년 불교충지중 추계강공회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봉행되었다. 전국의 기로스승을 비롯한 충지중 승단은 17일 통리원 인선 총무 부장의 집공으로 개강봉사를 봉행했다.

3.7 의례에 이어 불교 충지중 효강 종령예하는 법에서 “참석하신 여러 스승님들은 종조님께서 강조하신 참스승의 위와 도리를 이번 강공회를 통해 확실히 되새기는 자리여야 합니다. 불교 종단의 흥망성쇠는 승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종단의 성쇠는 승직자들의 수행 여하에 결정됩니다. 팔십 번째 강공회가 개최되는 오늘을 기점으로 종조님이 유후으로 남기신 참스승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강공은 전 승단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자리

입니다. 강공의 모든 일정을 통해 우리들의 수행력과 법력을 증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직자 본연의 서원은 상구보리라고 하화중생하는 대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번 강공을 수행하여 종단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며 추계강공을 통해 스승 본연의 자세를 되새기기를 당부 하였다.

지성통리원장은 인사말을 “지난 주 봉행된 제2회 통일 음악예술제를 통해 수고해 주신 많은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강공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기원 합니다.”며 원만한 강공이 되기를 서원했다.

이어 효강 종령 예하의 특별 정신교육

이 이어졌다.(종령 정신교육 전문 8면) 이번 강공은 외부 초청강사 없이 충지사 법등 정사의 『밀교염송선』, 백월사 범우정사의 『생각을 바꾸자』, 밀교연구소 범경정사의 『밀교입문』, 윤천사 도현정사의 『불교상당심리학』 강의가 있었다. 강공회에 앞서 원의회, 유지재단이 사회,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연석으로 열려 중앙 총회에 상정 할 안건들을 심의 했다.

전국의 스승들은 토론과 발표 위주의 이번 강공프로그램을 준비한 통리원 측에 감사를 표하고, 각 사원으로 돌아가 강공을 통해 얻은 교화의 방안을 실행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 하였다.

통리원=김중열 기자

제6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스페인대회 성료 -내년 일본에서 개최 예정



주로서 우뚝 설 그날을 향하여 매진하는 데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충지중의 주관으로 5회 대회까지를 한국에서 치르고 제6차 대회를 스페인에 이관하여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재가불교대회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번 대회는 티벳불교의 카르마파에 속하는 다이아몬드 웨이(Diamond Way) 스페인 지부 카르마 구엔(Karma Guen) 센터에서 주관했다.

본 종단에서는 지성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인선 총무부장 ILBF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장원 김종인 박사, 그리고 본 대회 명예회장의 자격으로서 초청된 화령 교육원장이 참석했다. 스페인의 남부 도시 말라가의 말라가 대학과 다이아몬드 웨이 말라가 지부인 카르마 구엔 센터에서 거행된 이번 대회에는 말라가 대학 및 유네스코 말라가 지부와 센터베리 기독교 대학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발표자 대부분이 박사급 지도자들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유럽 최대의 교파인 카르마 까꾸파의 올레 니달 라마가 참석하였으며 말라가 대학 총장과 유네스코 말라가 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이 대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충지중이 재가불교종단의 선구로서 이러한 대회를 시작하여 재가불교의 의의를 되새기고 미래사회에 대비할 불교도의 자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국 불교도들 간의 우의 증진에 앞장 서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내년 대회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관련기사 4,5면)

제6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International Lay Buddhist Forum:ILBF)가 〈현대사회에서의 재가불교:Lay Buddhism in the Modern World〉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30일에서 11월 5일까지 6박 7일 동안 스페인 남부도시 말라가에서 열렸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주장하며 시작된 이 대회는 불교충지중이 지난 2007년 발기하여 세계 각국의 재가불교 지도자 대표들을

중심으로 생활불교의 철학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대회이다. 충지중이 주관하여 5년에 걸쳐 대회를 치르는 동안 세계 각국의 재가불교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돈독히 구축하여 불교의 국제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종단이 되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세계 불교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생활불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미래 사회에 불교가 세계 각국의 정신적 지

한중일불교대회 일본 요코하마에서 봉행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2일 일본 요코하마 임정교성회관에서 봉행되었다.

불교충지중 지성 통리원장, 화령 중앙교육원장, 인선 총무부장, 수련 교정부장, 밀교연구소 범경정사 및 종단협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종단협 소속 각 종단 지도자 82명이 참석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쉐칭(學誠), 명성(明生)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의 회장 이

토 유이신(伊藤雅眞)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의 이사장 고바야시 류쇼(小林隆彰)스님,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의회장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스님 등이 참석했다.

독도와 센카쿠, 일본군위안부, 중국어인사망 등 3국 간의 외교적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평화 기원법회와 국제학술강연회, 공동선언문 채택, 축하 만찬 등을 통해 3국 불교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불교충지중 법장원 · 일본불교사연구소
2012년도 공동학술세미나

일본의 밀교

2012. 11.17(토) pm01:00 ~ pm05:30

불교충지중 통리원 2층 반야실

사석집(沙石集)의 와카(和歌)다라니론
_정천구(부산대)

세계의 문헌을 읽고:
츠다 신이치의 ‘위기의 탄트리즘’에 관한 생각
_아키히마(동국대)

일본 근대 재가불교에서의 근대성과 전근대성
_김종인(경희대, 불교충지중)

십주심론(十住心論)의 사상적 배경
_화령(불교충지중)

서울 남서부 교화의 전진기지 벽룡사 헌공불사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 교도 300여명 동참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다 함께 불사를 올리고 서원 하오니, 이 벽룡사 불법의 인연처가 되게 하옵고, 우비고뇌(憂悲苦惱)의 수렁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는 무진등(無盡燈)이 되고, 서원성취의 마니보궁(摩尼寶宮)이 되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의 원천이 되게 하며, 세계 평화를 이루는 불국토가 되게 하옵소서”며 헌공사를 비로자나 전하고 하였다. 이어 지성 통리원장은 “벽룡사는 도심 사원의 모범적인 사례로 범계도량을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며 그간의 감회를 밝혔다. 계속해 벽룡사 지회장 지진주 보살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서원 정진한 벽룡사 교도 여러분과 주교님 전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며 말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497-1 번지에 소재한 벽룡사는 대지 206㎡에 6층 건물로 2층과 3층을 사원으로 사용한다. 총기 7년

3월 20일 일광서원당 설단불사를 시작으로 개설, 총기17년 12월 24일 구 벽룡사 건물을 매입하여 본존을 이전 사원명을 벽룡사로 명명하였다. 이번 헌공불사를 통해 벽룡사는 서울 남서부 중심 사원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관련화보 12면)

벽룡사= 김중열 기자

불교총지종 총기41년 중앙총회 개최

-원의회, 재단이사회, 복지재단이사회도 열려.



10월 16일 총지종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총기41년 중앙총회(의장 대원정사)를 개최했다. 총회의장 대원정사의 집공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총회의원 17명 전원과 지성 통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그리고 통리원 담당 교무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기 41년추경예산안 및 총기 42년 예산안을 심의 결의하고 통과 시켰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통일음악예술제 관련 사항 보고, 신림동 수익성 건물 현황 설명했다. 또한 중앙총회회는 사무처장에 법일 정사를 선임하고 취임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원의회와 유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도 개최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결의했다. 결의 사항은 10월 18일 승단에서 전 스승님들과 교도들에게 설명 공포한다. 김중열기자

선대 열반스승 추선불사 봉행



10월 19일 불교 총지종 본산 총지사에서 열반스승 추선불사가 봉행 되었다. 추선불사에는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 지성 통리원장, 대원 중앙총회 의장, 인선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 중앙총회 의원 ,그리고 김은숙 서울. 경인 지구

신정회장 등이 동참 했다. 총무부장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불사는 개식사, 대비로자나불전호념, 훈향정공, 무상계독송, 유가삼밀과 광명진언, 실지정진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추선불사는 총지종을 발전과 교화의

밀거름이 된 열반스승님들에 대한 왕생성불을 추념하는 불사다. 올해는 추계 강공을 맞아 동시에 봉행 되었다.

총지사=김중열 기자

하정종사 제1주기 추선 법회 봉행

-10월 30일 부산 정각사에서



불교총지종 제7대 통리원장을 지낸 하정 종사의 제1주기 추선 법회가 10월 30일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되었다. 전국의 스승 및 교도님들과 부산, 경남 사원 교도들이 동참해 정사님의 교화와 수행 정진의 삶을 회고 했다.

총기 40년 10월 13일 열반에든 하정 종사는 총기3년 밀양선교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총지종 주요 보직을 거쳐 제7대 통리원장을 역임 하였다. 종사께서는 평소 원정대성사의 유훈을 받들어 총지종 교화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총지인의 힘을 모아
화합과 소통의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습니다.

총기41년 불교총지종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불교총지종 41년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에 동참해주신
불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화합된 모습으로 불법 흥포에 앞장설 것입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

제6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다녀와서

화령(불교총지중 교육원장/ILBF 명예회장)

스페인의 남부 도시 말라가에서
15개국 40여명 참가 6박7일 일정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에 걸쳐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가 스페인의 남부도시 말라가에서 6박7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지난 2007년에 우리 총지중이 발기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온간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5회 대회까지를 해마다 빠짐없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작년에 이 대회에 참가했던 스페인 대표 페드로 고메즈 씨와 그의 아들 피터 고메즈 부자가 스페인에서의 개최 의사를 밝혀와서 스페인이 주관하도록 한 것이다. 고메즈 부자는 티벳 불교의 카르마 까규파에 속하는 거사로서 스페인의 남부 도시 말라가에 까르마 꾸엔이라는 불교센터를 세우고 불교의 불모지 스페인에 불교를 알리기 위해 애쓰는 분이다. 우리 총단에서는 지성 통리원장님과 인선 총무부장, 그리고 이 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회 전반을 총괄하는 법장원의 보정 김중민 박사과 이 대회의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는 나를 포함하여 네 사람이 초청되었다.

10월 30일부터 대회가 시작되어 11월 5일에 끝나지만 우리는 한국의 일정도 있고 비행기편이 여의치 않아 10월 27일 아침에 출발하여 11월 4일 아침에 서울에 도착했다. 대회를 이틀이나 남겨두고 부득불 빨리 떠나야 했던 것이다.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비행기표 예매를 두달 전부터 서둘렀건만 핀란드 헬싱키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야 했다. 장장 9시간 정도를 비행기를 타고 헬싱키로 가서 거기에서 또 서너시간을 기다려서 마드리드로 가는 비행기를 4시간이나 타고 또 마드리드에서 기차로 갈아타고 3시간 반이나 가야하는 마나면 거리였다. 거의 4일을 오고 가는 데에 시간을 소비한 셈이다. 우리가 그동안은 안방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그런 고충을 몰랐었는데 그동안 유럽의 먼먼 곳에서 한국까지 와서 대회에 참석해준 모든 사람들의 고충을 절실히 느꼈다. 더구나 자비로 이 대회에 참석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한편으로는 <재가불교, 생활불교>를 강조하며 출범한 이 대회가 그만큼 흥미를 끌고 많은 의의를 지닌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해서 흐뭇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어쨌든 오랜 여정 끝에 마드리드에 도착하니 벌써 한 밤중이었다. 시차가 적용되어서 그렇지 한국은 다음날인 셈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밖을 내다보니 고색창연한 구시빌딩들이 아름답게 햇살을 받으며 눈앞에 나타났다.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햇살이 무척 눈부시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휴식을 취한 다음 호텔 근처의 마드리드 시내를 버스로 잠깐 돌아보기도 했다. 마드리드는 유럽 중심부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도시였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시가지에 있는 건물은 대부분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로서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무척 클래식한 분위기가 감도는 도시였다.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향수를 자아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 무척 정감이 갔다. 과거의 오래된 건물과 현대식 빌딩들이 공존하는 마드리드.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다 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개발만 서둘러서 옛 것이나 자연을 너무 소홀히 대했다. 이제부터라도 옛것을 아끼고 자연을 지키려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선진국의 지표는 그런 것으로 알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부터 자연 파괴에 앞장서고 있으니 후진국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까. 그렇다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각설하고 여기저기에 보이는 한국 기업의 광고며 한국 차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스페인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와 주로 무슨 교역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오기 전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면 스페인에 대해 좀 알아보고 간단한 인사발 정도는 배워 오는 건데 일본방문과 학술대회 준비 등이 겹쳐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고색창연한 남유럽의 중심도시 마드리드
한 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문화의 중심지

마드리드는 1561년에 스페인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수도가 되었더니 500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한 도시이다. 마드리드는 수도로서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635m)에 위치해 있으며 날씨는 온화하지만 강수량이 일 년에 420m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스페인어도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제2외국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중국어,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모든 간판이며 안내서 등이 모두 스페인어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것이 많았다.

시간이 넉넉하면 여러 곳을 둘러 볼 수 있었을 텐데 구시가지지를 대강 버스로 돌아보고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라는 마드리드에서 가장 유명한 궁전을 관람했다. 궁전이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의 호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스페인도 한 때는 무적함대를 거느리고 온 세계를 해점고 다니면서 부를 축적하고 큰 소리를 치던 국가였는데 그에

잘못된 건지 우리가 만난 스페인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스페인 사람들이 친절함 증거는 화장실 사용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서 화장실 가려면 열쇠를 얻어가지고 나가서야 불일 보는 경우가 많고 또 물건도 사지 않고 일반 상점에 들어가서 화장실 찾으면 통명스럽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아무데나 들어가면 친절하게 화장실을 안내해준다. 택시를 탈 때도 기본 요금이 달라서 바가지 씌우는 것 아닌가 잔뜩 긴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말 가격과 공휴일 가격이 모두 다르고 공항에 갈 때도 할증료가 불고 땀이 불기 때문에 그렇단다. 어쨌든 스페인 사람들에게 대해 받은 인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건조하지 않고 인간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로운 영혼의 스페인 사람들
여유럽과 쾌활한 스페인 사람들

중앙광장 근처에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 온갖 기념품을 파는 쇼핑센터며 커리캐처 그려 주는 곳 등이 즐비해서

조금씩 나타났다.

말라가 역에 내리니 니콜라스라는 인상 좋게 생긴 네덜란드 젊은이가 마중 나와 있었다. 네덜란드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지금은 까르마 구엔에서 불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업상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있는 동안 내내 시종을 들어준 고마운 청년이었다.

저녁 환영만찬은 말라가의 중심부에 있는 AC호텔에서 열렸는데 주관 당사자인 페드로 고메즈씨 부부와 아들 피터 고메즈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작년에 한국에서 보고 다시 여기에서 보니 무척 기쁘다. 고메즈씨도 무척 기쁘지 큰 소리로 인사하며 우리를 껴안고 빵을 비비고 하는데 좀 어색했다. 이쪽 사람들은 반가우면 이렇게 남녀를 불문하고 껴안아 버리는가 보다. 둘러보니 그동안 우리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한국이 아닌 스페인에서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니 정말 반갑다. 독일의 거쉰트 부부를 비롯하여 진 리브스와 그의 일본인 아내도 처음으로 왔고 우리 ILBF의 주요멤버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부탄, 네팔

있었다. 페드로씨의 불교에 대한 열정을 옆에서 지켜보면 대보살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돈을 움켜쥐고도 벌벌 떠는 우리나라 부자들과 너무 대비가 된다. 불교도라고 하면서도 그저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줄 줄이나 알았지 이렇게 불사를 위해 거금을 아끼지 않는 대보살은 처음 본 터라 그저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다.

불교의 불모지 스페인에 불교를 알리다
이 시대의 대보살 페드로 고메즈

우리가 떠나오기 전날은 모두 페드로씨가 세운 까르마 꾸엔으로 향했다. 말라가 시를 차로 40여분 정도 벗어나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서니 경관이 매우 훌륭한 곳에 희색 건물들이 두 동 서있었다. 한 쪽은 숙고 겸 식당과 기타 부대시설들이 서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지은 법당이었다. 페드로씨가 이 높은 산꼭대기에 30만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하고 1987년부터 여기를 스페인의 불교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20년째 불사를 해 오고 있는 곳이다. 이곳 말라가 사람들은 부자일수록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결맞게 궁전도 어마어마했다. 온갖 아름다운 무늬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궁전의 건축 자체도 경이롭지만 내부의 장식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하고 정교했다. 시간이 넉넉하면 꼼꼼히 살펴 보겠지만 일정상 대충 둘러보고 나오다가 미련이 남아 나중에라도 보려고 궁전에 대한 책을 하나 비싸게 주고 샀다. 사실 그리 비싼 책은 아닌데 유럽은 물가가 비싼 편이라 모든 것이 비싸게 느껴졌다.

궁전을 구경하고 나와서 조금 걷자 바로 옆에 '플라자 메이오'라고 해서 구시가지의 중심광장이 나타났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북미었는데 우리도 그들 무리에 섞여 걸었다. 좌우로 늘어선 옛 건물들이 정말 장관이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이처럼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지금도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여전히 사용중이라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 보도에 간 돌들도 아마 수백 년은 된 것이 여전히 쓰이고 있었다. 걸맞으면 갈아치우는 우리나라의 보도블럭하고는 비교가 안된다. 그 위로 신식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무척 부럽기도 했다.

골목에 서서 사진 몇 장 찍고 광장에 근처의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메뉴가 모두 스페인어로 쓰여져 있어서 뭐가 뭘지 몰아봐도 말도 안통하고 꽤 답답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한 집에 찾아가서 비숙하다 싶은 걸로 골라 허기를 메웠다. 주인 아저씨가 무척 미남이라서 칭찬해 줬더니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시키지도 않은 음식 몇 가지를 더 갖다 줬다. 여유 있고 친절함 스페인 사람들의 정을 느낄 만했다. 물가가 약간 비싼 느낌이 들어서 그랬지 우리가 마주침 스페인 사람들은 다 친절하고 여유 있어 보였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공항을 떠나오기 전에 면세점 서점에서 열핏 본 관광안내서에는 스페인 가면 소매치기며 도둑도 많으니 주의하라고 써놔길래 잔뜩 긴장했는데 운이 좋아 그랬는지 아니면 안내서가

눈요깃거리가 되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바르셀로나 메시 유니폼을 하나 사고 싶었지만 심 만일 가까이 해서 포기했다. 유럽 구단들이 유니폼 장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제서야 이해가 갔다. 광장에는 아직도 옛날 목동식 사진기로 관광객들에게 흑백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나도 기념으로 한 장 찍었다.

한참을 기웃거리다가 호텔로 돌아와서 좀 쉬고 저녁 먹으로 나섰더니 이곳 식당들은 모두 9시나 돼서야 문을 연다고 한다. 배는 고프네 9시까지 기다리다가 모두들 너무 피곤하고 시차 적응도 안되어서 잠이 드는 바람에 저녁을 굶었다. 잠이 깨니 이곳 시간으로 새벽 세시. 배는 고프네 먹을 것은 없고 난감했다.

스페인의 상점은 보통 열시나 돼서야 연다. 열두시 좀 되면 점심을 두 시간에 걸쳐 먹고 낮잠 좀 자다가 오후에 일 좀 하다가 아홉시 되어서 밤 먹고 와인 한잔 하고 열두시에 잔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 그렇단다. 스페인이 국가부도 위기니 어쩌니 그런다는데 겉으로 보서는 그저 평화로울 따름이다. 그나마 밤중에 불이 떨어져도 스페인 사람들 계속 그러고 살텐가?

29일 아침 마드리드 역에 가서 급행열차를 타고 말라가로 향했다. 우리나라 서울역 보다가 말라가 역을 보니 그다지 크지도 않았고 사람도 훨씬 한산했다. 우리나라는 좁은대서 북적대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어디든 사람에 치여 못살 지경인데 여기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스페인이 크기는 큰 모양이다. 스페인의 중심부라는 마드리드에서 시속 300km 급행을 타고 세 시간 반이나 가니 겨우 말라가가 나온다. 열차는 우리나라 KTX보다 빠르고 훨씬 편안했다. 가는 도중에 창밖을 내다보니 대부분이 평원지대이고 올리브 나무만 가득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 몇 시간이나 펼쳐지다가 남부지역인 말라가 근처까지 가니 얇은 산들이

등지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저녁 늦게 까지 환담이 이어진 가운데 리셉션이 성황리에 끝나고 다음날을 맞았다.

총지중, 생활불교의 선두주자
국제적 명성 속에 미래를 열다

포럼은 유서 깊은 말라가 대학에서 거행되었는데 말라가 대학 부총장과 말라가 유네스코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연설이 있었고 까르마 까규파의 라마 올레 니달(Ole Nydahl)이 특별 인사말을 했다. 니달은 유럽의 까규파를 실제로 이끌고 있는 재가 수행지도자로서 카르스마도 있고 법력이 있어 독일에서 십만 명을 모아 범회를 본 적도 있다고 한다. 복싱도 좋아하고 고공 점프에 스피드광이기도 했다는 특이한 경력의 사람이다. 공부도 많이 한데다 누구에게나 스스럼없이 다가서고 허례허식식과 가식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 같았다.

세미나는 이틀에 걸쳐 7개 파트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현대사회에서의 불교를 여러 각도에서 나누어 분석한 파트가 3개, 그리고 한국에서의 재가불교, 동남아시아불교의 혁신, 네팔의 재가불교, 동아시아에서의 재가불교 등에 대한 발표가 저녁 8시 가까이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발표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잠시 틈을 내어 페드로씨가 우리를 자기들이 세운 스투파에 데리고 갔다.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무척 좋은 곳을 말라가 시로부터 기증 받아 33미터의 탑을 세웠는데 무척 웅장하고 보기 좋았다. 불교의 불모지 스페인에 그것도 남부 지방에 이렇게 불교탑을 세우고 불교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같은 불교도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페드로씨 부자는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을 모두 이렇게 불사에 쏟아 부어 놓고 있는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건너편 산마루를 보니 모두 흰색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특이한 경관이다.

페드로씨는 이곳에도 불탑을 건립했는데 인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만난 사람 하나도 말라가에서 80km나 떨어진 곳에 산다는데 까르마 꾸엔을 알고 있다고 했다. 법당은 200여 평이 넘어 보였는데 장엄한 불상과 웅장한 기둥, 높은 천정 등이 인상적이었다. 벽은 모두 티벳의 불화인 탕카로 그려져 있는데 순금과 천연 염료를 써서 한껏 정성을 기울여 그려 놓았다. 아마 이 법당을 건립하는 데에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계속하여 불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 산꼭대기에 범회를 할 때면 최대 3천명이 모이기도 한다고 했다.

불교의 불모지 스페인에 이러한 열정을 가진 대보살과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로서는 큰 영광이었다. 기회가 있으면 한국의 불자들도 여기에 와서 이곳 이방의 불교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교를 위해 헌신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만들고 있는 지 함께 보았으면 하는 기원을 하면서 까르마 꾸엔을 떠나왔다. 일정이 끝나기도 전에 떠나오게 되어 많은 참석자들에게 무척 미안했지만 이들은 우리를 포용하면서 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불교도로서의 우의를 흠뻑 나누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으랴.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여 다 같은 불자로서 한 점 사심 없이 오직 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여 도반으로서의 우의를 나누는 이런 모임은 세상에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런 중심에 우리 총지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인가. ILBF에서 영원히 발전하라.



11세기 화엄 밀교의 전통이 남아있는 봉정사 삼성각



안동. 불법의 향기를 품은 국화 같은 고장

안동하면 소수서원, 양반 마을, 하회탈, 간 고등어 등 여러 단어들 이 떠오른다. 몇 해 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한국을 왔을 때, 하회마을을 류성룡의 종가와 봉정사를 방문했다. 하회마을은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은 풍산 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다. 마을 이름을 하회(河回)라 한 것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되었다. 하회마을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였다. 유학이 성행하고, 양반가의 명망으로 이름이 높은 안동에는 의외로 많은 불교문화재가 남아있다. 고려시대 전탑의 웅장한 모습을 전해주는 신세동 전탑을 비롯해 살아있는 불교건축 박물관인 봉정사, 거대한 통 바위 위에 불두 만 조성해 얻은 제비원 미륵불 등 발길 닿는 곳마다 불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봉정사는 소백산 자락의 천등산에 자리한 전통 사찰로 국보 제15호인 극락전, 국보 제311호인 대웅전, 보물 제1614호 후불벽화, 보물 제1620호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보물 제 448호인 화엄강당, 보물 제449호인 고금당, 덕취루, 무량해회, 삼성각 및 삼층석탑과 부속암자로 영산암과 지조암, 중암이 있다. 천등산 자락은 국화 재배로 유명하다. 사찰이 위치한 서후면은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에 국화 축제를 열고, 전국의 불자와 관광객들에게 국화의 진한 향기를 선사한다.



천상의 선녀도 감복한 불퇴전의 수행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스님이 창건하신 사찰이다. 스님이 한창 수행 정진할 때, 산세 좋기로 유명한 대망산(지금의 천등산) 기슭의 바위굴에서 공부했다. 스님의 수행 정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천상의 선녀가 바위굴을 찾아 하늘에서 가져온 등불로 굴 안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는 설화가 있다. 이때부터 스님이 공부하던 바위굴을 '천등굴'이라 하고, 대망산이라 불리던 산의 이름도 '천등산'이라 부른다. 능인스님은 이후 더욱 수행에 매진하여 얻은 도력으로, 종이 봉황을 접어서 날리니 지금의 봉정사 자리에 떨어져 산문을 개산한다. 스님이 날린 종이 봉황이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봉정사라는 이름을 짓는다.

봉정사는 창건 설화만큼 오래 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다름 아닌 봉정사 극락전이다. 가공석 및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과 주심포(柱心包) 건물로 고려시대의 건물이지만 통일신라시대의 건축양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 건물은 감실형으로 주벽이 토벽으로 밀폐되고 따로 낸 문얼굴에 널빤지 2장을 사용한 문짝을 달았고 좌우 협칸에는 살이 각 11개가 달린 광창이 있고, 그 구성이 매우 간결하면서도 아름답다. 본존은 아미타불만 모시고 있지만, 후불탱화는 본존불인 아미타불과 좌우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그린 삼존도형식을 취한다.

천등산을 감싼 진연의 기운

대망산이었던 천등산은 봉정사 극락보전 왼편으로 삼성각을 두고 있다. 어느 삼성각과 마찬가지로, 외전으로 자리하는 터라 그리 크지 않은 소박한 단칸집이다. 그러나 출입구 양쪽에 벽을 설치하여 언 듯 보기에는 단칸이지만 세 칸으로 보이는 양식이다. 산신, 칠성, 독성을 나란히 봉안한 전각은 천등을 이어나가는 외호신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산신도와 산신상을 함께 모셨는데, 지나치게 커 보이는 소나무는 다른 지역의 산신도의 양식과 조금 다른 특별함을 보인다. 산신각을 천천히 살피던 중 지붕아래 보에서 범자 움자와 마자를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러 사찰의 산신각, 삼성각을 취재했지만 범자가 보나, 도리에 새겨진 것은 처음이었다. 천등사 대웅전의 우물 천정에서도 관세음보살 육자진언을 만났다. 정확한 사료의 분석과 검토를 해야 밝혀지겠지만,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의 화엄종의 수 사찰인 부석사를 중심으로 널리 퍼진 화엄 밀교에 그 연원을 추정해 본다. 또한 11세기 이후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13세기 경에



서후면 봉정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제비원 미륵 석불은 보물 제116호로 자연암벽에 불신을 새기고 그 위에 머리는 따로 제작하여 올려놓은 거구의 불상이다. 미소를 띤 풍만한 얼굴은 긴 눈과 우뚝 솟은 코, 붉게 채색된 두터운 입술과 함께 장중하고 근엄한 인상이다. 삼도가 뚜렷한 목에는 특이하게 연주문(連珠紋)을 새겨 장식하였다.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通肩)의 법의 주름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대좌는 불상의 발아래 단판연화문으로 음각으로 새겼다. 얼굴의 강한 윤곽이나 세부적 조각 양식으로 보아 11세기 무렵, 고려 마애불의 유행과 함께 제작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음각으로 새겨진 수인에는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오른손은 내려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미타여래이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 마애불의 이름은 제비원 미륵으로 불리고 있다.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 불교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이다. 자연석을 하나의 석상 보고자 하는 고려 마애불의 특징적이기도 하다. 또한 불상의 일부를 입체적으로 표현된 양식은 통일 신라의 조각 기법과 고려의 표현 양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 사이의 정치적 변동과 맞물려 미륵신앙이 점차 고개를 들었다. 특히 하층민들의 경우 종교성이 강한 미륵신앙에 새로운 희망을 걸게 된다. 제비원 미륵불은 고려 건국의 복잡한 정세를 타고 변모하는 민중불교의 성격을 가지는 미륵신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석불상이라 볼 수 있다.

제비원 미륵불은 오랜 민속신앙인 성주신앙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가옥을 짓거나 이사를 하면 성주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성주신은 가택신을 말하는데 선조들은 성주신이 가옥을 지키고, 가옥내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고 믿었다. 바로 그 민속 신앙의 발원처가 안동의 제비원 미륵 부처님이다. 성주고사 때 부른 '성주풀이'에는 "성주의 근본이 어디메냐?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일러라. 제비원에 솟아 받아..."라는 가사에 나오듯 이곳 제비원 미륵이 바로 우리나라 모든 가택을 지켜주는 성주신임을 확인해 준다.

안동=김종열 기자

제비원 미륵불과 성주풀이



“편집위원이 가다”

작은 궁궐: 전란을 대비한 완벽한 시설 남한산성 행궁

가을이 깊다. 남한산성을 오르는 좁은 2차선 도로의 양옆으로 단풍이 한창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느껴지 못한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을 오늘 온몸으로 느낀다. 지난 4월 호암미술관 취재를 끝으로 한동안 편집위원들이 취재를 나서기가 힘들었다. 상, 하반기 불공과 호국안전기원대법회,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이제 한 숨 돌리고 가을이 깊어가는 남한산성으로 편집위원들이 다시 모였다. 총지사에 모여 미니버스에 올라, 채 30분도 안되어 남한산성 한 가운데에 당도했다. 이리 가까운 곳에 자연을 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을 왜 몰랐을까? 오늘은 남한산성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독자들에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한양을 지키던 최후의 보루

남한산성은 북한산성(北漢山城)과 더불어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이다. 백제가 한강유역의 한성 백제를 온조왕의 성터라는 전설이 남아있다. 본격적인 성곽은 신라 문무왕(文武王) 때 쌓은 주장성(晝長城) 축조로부터 시작된다. 조선 인조 2년 1624년에 지금의 형태로 축성을 본격화 한다.

《남한지(南漢志)》에 따르면, 원래 심기원(沈器遠)이 축성을 맡았으나 그의 부친상으로 인하여 이서(李曙)가 총융사(摠戎使)가 되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의 부여(賦役)는 주로 승려가 맡았다. 4문(門)과 8암문(暗門)이 있으며 성안에는 관아(官衙)와 창고 및 국가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모든 시설을 갖추었고, 7개의 절까지 세웠으며,

1626년 7월에 공사를 마쳤다. 이후에도 순조 때에 이르기까지 성내의 시설 확장은 계속되었다.

임금이 거처할 행궁(行宮)은 상궐(上闕) 73칸(間) 반, 하궐(下闕) 154칸 이었다. 재덕당(在德堂)은 숙종 14년에 세웠고, 1711년에는 종묘를 모실 좌전(左殿)을 세웠다. 그리고 사직단(社稷壇)을 옮길 우실(右室)도 세웠다. 한마디로 작은 궁궐을 옮겨 놓았다. 1624년에 건립된 객관(客館:人和館)은 1829년(순조 29)에 수리된다. 관아로는 좌승당(坐勝堂), 장각(日長閣), 수어청(守禦廳), 제승헌(制勝軒)이 건립되었다. 군사기관으로는 비장청(裨將廳), 교련관청(敎練官廳), 기패관청(旗牌官廳) 등을 비롯하여 종각(鐘閣), 마랑(馬廊), 뇌옥(牢獄), 등이 들어서 유사시 군 사령부 역할을 하였다.

불법과 나라를 같이 지켜낸 승군(僧軍) 최고 사령부

남한산성에는 유사시 나라를 지키는 승군을 총괄하는 승도청(僧徒廳)이 자리했다. 팔도 승군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분연히 일어나 창을 드는 성군(聖軍)으로서의 불교도와 스님들의 힘은 대단히 컸다.

남한산성의 축성에도 승려 각성(覺性)이 도총섭(都摠攝)이 되어 8도의 승군(僧軍)을 동원하였다. 이들의 승군의 수행과 거처를 위하여 예전부터 있던 망월사(望月寺), 옥정사(玉井寺) 외에 개원(開元), 한흥(漢興), 국청(國淸), 장경(長慶), 천주(天主), 동림(東林), 동단(東壇)의 일곱 개의 사찰(寺刹)이 장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장경사만이 남고, 나머지는 폐사지로 사적으로 지정 되어 있다.

남한산성의 수비는 처음에는 총융청에서 맡았다가, 성이 완성되자 수어청이 따로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5영(營)이 소속되었는데, 전영장(前營將)은 남장대(南將臺)에, 중영장은 북장대에, 후영장과 좌영장은 동장대에, 우영장은 서장대에 진(陣)을 쳤다. 현재는 서장대(수어장대, 守禦將臺라고도 함) 하나만이 남아 있다. 수어장대는 높은 섬돌 위에 2층으로 지었는데, 아래층은 정면 5칸, 측면 3칸이고, 위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지붕은 팔작(八作)이며 겹처마에 위층은 판문(板門)으로 막았으나 아래층은 개방되어 있다. 성문은 홍예문(虹霓門) 위에 성가퀴를 두르고 단층(單層) 문루(門樓)를 올려 세웠는데, 매우 당당하고 위엄이 있다.

남한산성의 축성 완성 된 뒤, 수어사(守禦使)

이시백(李時白)이 처음으로 유사시에 대비할 기동훈련의 실시를 건의하여, 1636년(인조 14년)에 1만 2,700명을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해 12월에 막상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문을 열어 화의(和議)하고 말았다. 결국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쌓은 성이었으나 제구실을 하지 못한 뼈아픈 역사(役事)의 현장이기도 하다.

아픈 역사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인조 17년 1639년 조선은 청나라와의 전쟁에 패배하고 굴욕적인 강화협정을 맺는다. 이 전란을 우리는 병자호란이라 부른다. 청은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내고, 그 자리에 새운 비석이 바로 '삼전도비'다. 원래의 비명은 삼전도청태종공덕비(三田渡淸太宗功德碑)로 이조판서 이경석(李景奭)이 글을 짓고, 글씨는 오준(吳峻), 비명(碑名)은 여이징(呂爾徵)이 썼다고 전한다. 내용은 청나라가 조선에 출병(出兵)한 이유, 조선이 항복한 사실, 항복한 뒤 청 태종이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곧 회군(回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석의 한쪽 면에는 한문, 다른 쪽 면에는 만주문(滿洲文), 몽골문으로 번역되어, 하나에 3개국 문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마리의 이수(虯首), 받침돌의 귀부(龜趺) 조각도 정교하여 미술사적으로는 조선 후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원래는 석촌호수 주변에 세워졌으나, 그 치욕적인 의미 때문에 1895년(고종 32년) 매몰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본에 의해 다시 세워지고, 1956년 문교부가 국치의 기록이라 해서 다시 땅 속에 묻었다가, 1963년에 다시 세우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가 2010년 4월 고증을 거쳐 최초의 위치인 석촌호수 서호 언덕으로 옮겨졌다.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반면, 잊지말아야하는 치욕의 역사도 있기 마련이다. 모두가 우리의 역사이다. 최근 일본이 행하는 영토 분쟁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인식을 바라볼 때,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고민해 본다.

취재=편집위원 이인성, 박묘정, 박정희, 최영아, 강경민
통신원 양재범, 이형자, 김옥임
편집정리 = 김종열 기자.



불교총지종 교도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 상담전화
02.967.2228

치아교정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충치치료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

제 80회 추계 강공
종령 특별 정신교육

이번 강공의 주제는 “참스승이 되자”입니다. 참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조님의 유훈이신 (종조법설집)의 스승의 사명을 낭독하면서 그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종조 법설집 3P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승의 사명

『스승은 매일 교도와 접촉하는 교화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명이 매우 중차대하고 따라서 종단의 성쇠를 좌우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종략) 이것을 잘 체득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을 위하여 자기형편이나 자기교회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종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세워가는 대아적인 위치에서 현세정화에 사명감을 가지고 퇴전 없는 정진으로서 종단의 유구한 발전과 세계평화의 결실을 거두어서 우리 총지종의 입교개종의 정신이 중외에 빛나고 세계만방에 불일이 증휘하도록 하는데 훌륭한 역군이 될 것을 서원하여 마지않는다.』

종조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승은 매일 교도와 접촉하는 교화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정말 중차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단의 성쇠를 좌우함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교화의 제일선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살님, 교도들의 제도는 물론이고, 나아가 종단의 성쇠까지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간의 지성 있고, 모범적인 사람을 보면 인생관이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관이 분명하므로 자신의 목표 또한 확실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 스승님들은 세속의 사람들 보다, 그 이상으로 인생관이 서야합니다. 총지종의 정사, 전수로서 나의 몸을 던져서라도 많은 중생들을 교화시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교화를 하다보면 온갖 고난이 닥칩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비바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큰 나무가 되듯이, 고난을 각오하고 용맹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에 이르기를, 팔풍 (八風)에도 동(動)하지 말라 했듯이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굳건히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 정도가 될 때 주위의 교도들이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감동을 느끼고 그분도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용기를 얻고, 부처님의 진리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는 세간의 영욕에서 초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욕을 받더라도 인욕바람을 행하면, 수행이 무리되고 자연히 교도들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중생도 원망심과 진애심을 버리라고 했는데, 할수록 우리 성직자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됩니다. 절대 존경받지 못합니다.

교화를 하다 어려울 점, 안 되는 점을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참스승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화의 방안을 찾는다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종조님 말씀에 “대승 보살행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그것을 소제로 인격화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오상성신의 불퇴전의

각오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고 실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법문 아님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는 고난을 법문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과정들을 되새겨 참회도 해보고, 법문을 소제로 해 인격화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불퇴전의 정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승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수행과 정진에 임해야 합니다. 이는 참 스승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상성신관 (五相成身觀)』에 대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비만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이 성숙되면 대비만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닦아서 잘되겠다는 것은 대비만행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내어놓고, 항상 남을 위해 정진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대비만행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성도할 수 있습니다.

대비만행을 위한 오상성신관도 수행의 관법의 하나입니다. 밀교에는 여러 가지 관법이 있습니다. 우리 총지종에서 행하는



수행이 삼밀관입니다. 삼밀관은 부처님과 내가 서로 광행으로 왕래하는 관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은 수직으로 성불하기 위한 과정을 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밀관행을 하다보면 염송 정진 중에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면서 자신의 참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염송 정진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에서 온갖 번뇌 망상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육자진언을 통해 우리는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수 있고, 이를 통해 참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수행이 바로 오상성신관입니다.

오상성신관은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불을 위한 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는 통달보리심(通達菩提心)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본유의 보리심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구성불이라 하지만은 누구든지 모두가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번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으로 그 자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상성신관의 통달보리심은 바로 자신 속에 보리심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뿌연 안개 속의 청명한 달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이 단계를

통달보리심이라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깨치기를 염원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보리심(修菩提心)입니다. 수행에 의해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진 보리심을 개현하는 단계에 다다른 경지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와 같은 보리심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밖으로 개현 즉 나타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달보리심에서 청명한 불심의 달에 깬 안개가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끼는 단계가 바로 수보리심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청정무구함이 보름달과 같다고 관하는 것입니다. 즉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개를 걷고 청명한 보름달을 보는 것과 같은 단계입니다. 마음의 때가 벗겨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성금강심(成金剛心)입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금강관이고, 다른 하나는 영금강관입니다. 여기서 금강은 보리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금강심이라고 하면, “본존의 삼매야행과 내 자신의 삼매야행이 둘이 아니고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삼매야행은 무엇이냐 하면, 이상 즉 본래 소원하는 것, 최고 경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본존으로 옴마니반메움을 모시고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자재보살의 경우 삼매야행은 연꽃입니다. 우주의 연꽃과 동일한 점에 일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광금강관은 우주법계와 자신의 삼매야행을 귀일시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을 넓혀서 우주법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넓히면 바로 우주법계가 됩니다.

영금강관은 우주법계를 내 마음 가운데 귀일시키는 것입니다.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펴면 바로 우주법계이고, 우주법계를 손으로 쥐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삼매야행과 부처님의 삼매야행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성금강심입니다. 바로 내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 속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상이 ‘불이사상’인데 부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개개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원수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단계까지만 가도 굉장한 보리심이 열렸다고 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증금강심(證金剛心)이 됩니다.

네 번째가 증금강심(證金剛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삼매야행과 동일하고 불이 한 것이라면 자신의 육신 또한 본존의 삼매야행과 만다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자신과 본존의 만다라와 불이된 것을 체증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부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금강심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다섯째가 불신원만(佛身圓滿)입니다. 내가 부처와 하나가 된 것 바로 성불하는 것, 성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학술적으로는 “이미 자신의 삼매와 만다라가 곧 부처님의 삼매와 만다라가 되었다면, 이것이 불신(佛身)을 성취한 경지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자신이 부처의 경지를 체득 하였을 때, 밀교의 이상인 성불이 완전 완성된다.”는 설명입니다.

성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잘해서 불신원만이 되면 살아있는 이 몸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런 다섯 단계가 바로 오상성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염송정진을 하면서 스스로 어느 단계 인지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종조님의 말씀처럼 불퇴전의 각오로 물러남이 없는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된다고 그만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퇴전의 정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스승이 되겠습니까? 최근 어느 사원에 젊은 보살님들이 많이 입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청소년 수련 법회를 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청소년 대표자가 본산에 올라 왔습니다. 당시 대표자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되니 주기적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시에 어린이 법회를 연 이유로 장차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교를 펼쳐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어릴 때 제도를 해야 청소년을 거쳐 청장년이 되었을때 부처님 법을 제대로 따르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큰 인물이 되고 가정에서도 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스승님들은 부처님 법을 전하고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제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화의 방법들을 다각도로 구성하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거울로 삼아 더 좋은 방법들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염송 정진을 통해 방안을 찾으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참스승이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정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 김종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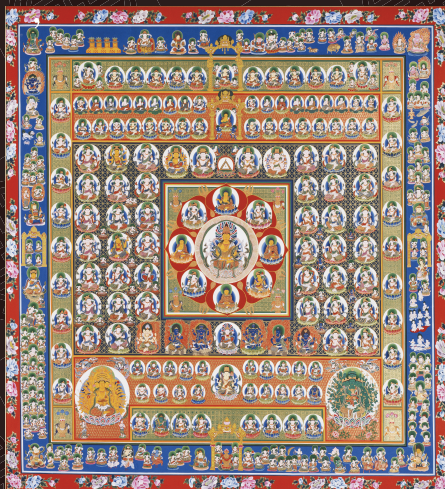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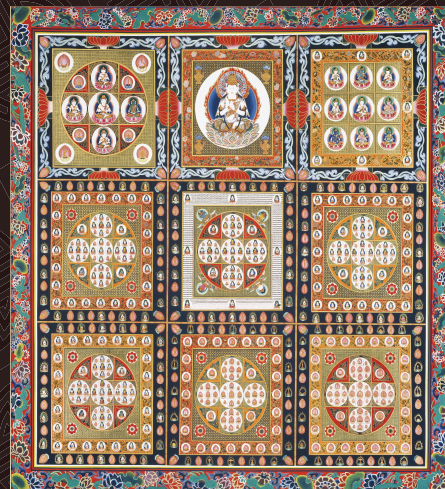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장경 만다라 _ 胎藏界曼荼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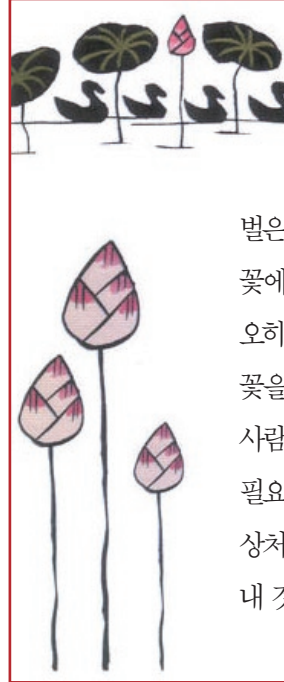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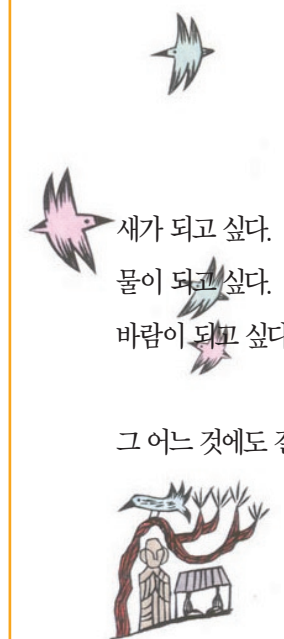


아름다운 관계

별은 꽃의 꿀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허려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 줍니다.
사람들도 남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만을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썩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삶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장용철 / 시인



꿈

새가 되고 싶다.
물이 되고 싶다.
바람이 되고 싶다.

그 어느 것에도 결함이 없이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새라면.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끼고 돌아가고,
산을 만나면 두 팔 가득 보듬어 안고 함께 가
며, 가시철망 세멘콘크리트를 만나면 배 밑으로
기어가다가, 흙을 만나면 땅 속 깊이 스며들어
마침내는 이윽고 콰랄 초르르 흘러 갈 수 있는
물이라면.

늘 머물러 있으면서 늘 떠나고 늘 떠나면서도
늘 또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바람이라면.

김성동 / 소설가



이달의 사진 “채마밭에 가을은 물들고”

사진 = 안동 봉정사 김종열 기자

VISUAL 불교총전

제 41화

http://www.drawing라홀라.kr
글/그림 정수일

부처님의 복발 중생의 복발

호오!

저 사람은 참 부자구나.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에헴!

대지는 하나여서 차별이 없지만 온갖 색을 뜨게 한다.

중생의 복발

에잉!

저 사람은 가난하군. 집도 차도 없고, 행색이 참 초라하구나.

부처님의 자비는 엉터리야! 믿을 수 없어.

말 다했냐?

확!

전 우주가 나의 것이라 나는 항상 행복하다. 참 세상은 공평해.

공평? 내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을!

비가 온다! 땅파기 좋다.

오면 뭘해.

오든지 말든지.

비가 온다!

비가 오는 거 하고 뭘 상관입니까!

네가 있던 곳엔 비가 얼마나 왔는지 봐라.

부처의 자비와 복은 평등해서 누구에게나 똑 같다.

요만큼~

그릇이 커야 빗물을 많이 받을 텐데 1대는 그 조그만 강통으로 물을 얼마나 받겠느냐?

이게 나의 복이란 말이지?

네가 서있던 자리 땅속에 형금이 있었는데, 두더지가 묻고 갔다.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5장 인과응보편 230p-1절 3

암반수로 빚은 전통된장, 강화도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된장 1kg : 20,000원
간장 1.8L : 10,000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원리 1번지 대표 이상숙 전화: 032)932-5351 핸드폰 : 010-2258-5351 농협 366-02-010716 이상숙